

SPECIAL ARTICLE

가 구 와 예 술 , 자 연 의 경 계 에 서
○
최 병 훈 작 가 를 만 나 다

Byung Hoon CHOI
afterimage of beginning 013-394
3,400 x 700 x 530 basalt
Fridman Bender Gallery



S.A03

가 구 와 예 술 , 자 연 의 경 계 에 서

O

최 병 훈 작 가 를 만 나 다

국내 아트 퍼니처의 선구자이자 홍익대학교에서 오랜 세월 학생들을 사사해 온 최병훈 선생의 작업실을 찾았다. 파주의 조용한 작업실에는 각종 목재와 샘플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 자연석인지 의자인지, 형태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모호한 갖가지 조형물들이 눈에 들어온다. 최병훈 작가는 홍익대학에서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가구디자인을 전공한 작가는 목가구를 중심으로 작업을 펼쳐왔다. 90년대에 들어, 그 동안 고심해 오던 가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이라는 소재를 도입한다. 그의 작품 속에서 목재가 정제되고 다듬어진 가구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면, 돌은 원석의 거친 맛으로 단단하고 무겁고, 거친 물성으로 대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바라보는 돌

작가의 작업실에는 여러 가지 의자들이 놓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꼭 앉아 보고 싶은 의자는 한 쪽 끝에 투박한 화강석이 놓여 있는 나무 의자였다. 앉아 보니 기분 좋은 긴장감으로 의자가 반동 한다. 연약하지는 않을까 조심스러웠는데 생각보다 탄력이 좋아 곧 의자에 전신을 의지하게 된다. 적당히 먼 거리에 뭉툭한 돌덩어리가 있어 자연스럽게 바라보게 된다. 나의 시선에 톡 하고 시간성과 존재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진다. 명상을 부르는 의자다.

A / 최병훈 :

처음에는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돌을 차용했습니다. 딱 그 정도의 무게와 부피감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들어온 돌의 물성은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 이상의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역겹의 세월이 만들어 낸 시간성, 거친 표면이 건네어 오는 질감의 맛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돌에 매료되어 이후 고인돌을 보러 거창과 강화를 돌아다니기도 하고, 마애불을

찾아 다녔습니다. 남산의 마애불이 주는 감성은 우리 민족만의 어떤 정신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무 노구치ISAMU NOGUCHI 등이 표현한 동양의 정신과는 또다른 맛이 있습니다. 제 컴퓨터의 바탕화면에는 고인돌 사진이 깔려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 민족만의 기운을 받고자 자주자주 들여다봅니다.

Q / H.art :

이 의자의 절묘한 긴장감이 참 기분 좋습니다. 이런 텐션을 만들어 내기 위해 특별히 연구나 노력을 하셨는지요?

A / 최병훈 :

처음 이 의자를 만들 때에는 스테인리스로 샘플 작업을 했기 때문에 두께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할 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 포항제철의 담당 연구원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의자의 굴곡과 앉는 사람의 무게, 재료의 강도 등을 계산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두께로 실험을 거듭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이후에는 합판, 카본파이버 등 다양한 소재로 에디션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감각적인 부분이 스며들었겠지요. 80년대, Memphis 디자인의 창시자인 에토르소사스Ettore Sottsass는 ‘기능을 양보하고 심미적인 것을 얻자’고 했습니다. 저도 이 정신에 영향을 받아 예술가구art furniture라는 장르를 한국에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돌의 원시적인 심미성이 이러한 예술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하나의 장치로 작용했구요.

Byung Hoon CHOI
afterimage 08-263. meditation chair
1,700x550x900
carbon fiber, glass fiber, vinly ester resin, balsa, black granite.



Byung Hoon CHOI
afterimage of beginning 013-392
3,140 x 580 x 540 basalt
Fridman Bender Gallery

일필휘지

태초의 잔상Afterimage of beginning의 의자들은 의자와 돌, 자연과 인공의 경계를 오가는 작품들이다. 인간에 의해 다듬어 진 부분과 자연 그대로의 부분의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는 소재 자체가 작가에 영감을 준 것이다.

A / 최병훈:

작가는 작업의 소재를 찾기 위해 많은 공을 들입니다. 돌을 찾아 수없이 여행을 하고, 목재를 찾아 전 세계의 목재를 살펴보았습니다. 제 작업에 적합한 돌 찾기를 하던 중, 인도네시아에서 이 석재를 만나게 됐습니다.

작가가 사랑에 빠지게 된 이 돌은 하나의 소재가 돌, 셋 이상의 다른 목소리를 갖고 있는 실로 매력적인 물성을 갖고 있었다. 다듬어 진 부분은 특유의 빛나는 광택을 뽐어 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마치 철제나 다른 소재인 듯 극명한 대비가 드러났다.

A / 최병훈:

최근에는 인공적인 가공을 점점 더 줄이려고 합니다. 그냥 그 자체로서의 매력을, 땅에서부터 바람의 방향으로 원래부터 그러했던 것 같은 느낌을 더 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작들은 더 돌덩어리 그 자체 같다. 돌덩어리가 마치 살아 꿈틀거리며 의자도 되고, 오브제도 되고 하는 것 같다. 풀 발 위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준다.



Byung Hoon CHOI
afterimage of beginning 013-396
2,600 x 750 x 680 basalt
Fridman Bender Gallery



Byung Hoon CHOI, afterimage of beginning 017-482. 1,600 x 800 x 750, 1,680 x 800 x 750. basalt



작가는 또 한번 어른의 시선어로, 어른다운 명상을 통해 크고 새로운 시도를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가구 작가로 시작하여 ‘예술 가구 art furniture’라는 장르를 국내에 도입, 소개했을 뿐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류하는 스승으로서 열심히도 살아왔다. 은퇴 이후에 전업작가로서 거침없이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하는 그에게 세계의 미술관들은 기꺼이 러브콜을 보내며 환영한다. 2020년, 휴스턴 미술관에 소개될 선비석 연작은 돌덩어리, 명상, 먹 냄새, 묵직하게 움직이는 붓의 흔적, 자연의 응집력과 무한한 파워, 소용과 무용, 인간의 손... 이 모든 경계에서 조용히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를 내는 작업이다. 그 덩어리 틀에는 작가의 오랜 내공과 자연에의 경외, 사랑, 삶에 대한 애정과 감사함이 묵직하게 스며 나오는 멋짐이 깃들어 있다.

SCOLAR'S WAY

작가의 작업실 한 가운데에는 의외의 먹 그림들이 여기저기 작업 중이었다. 책상 위에는 돌 덩어리에서 어떤 기운이 뿜쳐 나온 듯한 조형물 모형 세 개가 놓여 있다. 마치 작가의 태초의 잔상 의자가 벌떡 서 있는 듯한 형상이다.

A / 최병훈 :

이것은 2020년 휴스턴 뮤지엄에 설치될 작업의 스케치입니다. 원래 우리 문화에는 선비석Scholar's Stones이라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작품은 바로 선비석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 진 것입니다. 자연석에서

온 우주를 느끼며, 자기성찰과 묵상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2020년 미술관 설치를 위해 작업 중인데, 스케치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먹작업으로 다양한 시도를 해 보는 중입니다.